“임진왜란 호국영령이시여, 극락왕생하소서”

4월 16일, 거제도 장목항 수륙대재 열려

부산불교대학 · 화엄승가회 주최
칠전량 등 왜란 호국영령 위무
왜란 전사한 호국 무명 영가위해
부산 · 거제시민 3000여 명 동참

거제도=이도경 부산지사장

부산불교교육대학(학장 범혜)과 화엄승가회(회장 자인)가 4월 16일 거제도 장목항 특별무대에서 ‘제1회 칠전량 · 장문포 해전 호국영령 수륙대재 및 음악회’를 봉행했다.

이번 수륙대재는 임진왜란 당시 죽임을 당한 조선 수군의 호국영령을 위로하고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자리이다. 칠전량 해전에서 사망한 조선 수군은 당시 1만여 명으로 집계된다. 대규모로 수륙대재를 봉행하며 호국영령의 극락왕생을 발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륙대재에는 학장 범혜 스님과 화엄승가회 회장 자인 스님, 화엄승가회 소속 30개 사찰 스님과 불자, 부산불교교육대학 총동창회 회원을 비롯한 지역민 등 3000여 명이 동참했다.

수륙대재는 사물패 길놀이를 시작으로 △인례 △봉행위원장 인사 △참배 △승무 △옹호게 △사자단 불공 △육법공양 △화엄경 약찬게산왕경 · 용왕삼매경 독송 △신묘장구대다라니 작법 △상단 · 중단 의식 동음창화 △법어 △축원 △신중퇴공 △대령 관욕 △금강경찬 3편 송주, 수생경 독송 △수아차법식 △점안의식 △마구단(소대) 순으로 진행됐다. 수륙대재에 이어 생전예수재와 방생법회를 봉행하며 계묘년 윤달을 기념하고 복덕을 기원하는 시간도 진행했다. 2부 행사에서는 행사를 기념하는 인기가수 진시몬의 공연도 이어졌다.



부산불교교육대학과 화엄승가회가 4월 16일 거제도 장목항 특별무대에서 ‘제1회 칠전량 · 장문포 해전 호국영령 수륙대재 및 음악회’를 봉행했다.

불자들은 행사에서 승보공양을 올리며 스님들께 감사인사를 올렸다. 승보공양은 화엄승가회 소속 옥천암 불자가 공양금을 보시했다. 스님들은 참여한 불자들이 수행 정진 할 것을 당부하며 마정수기도 함께 진행했다. 마정수기에서 스님들은 향탕수가 들어 있는 바루를 각자들고 신도들에게 다가가 이마에 관정했다. 불자들은 관정을 받으며 합장을 하고 참회진언을 염송하며 호국영령의 극락왕생과 생전예수재 및 방생을 통한 공덕을 기원했다.

증명법사인 화엄승가회 회장 자인 스님은 “우리는 무엇 때문에 고통을 받는가? 두가지 이유때문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로 인해 만들어지는 관계와 재물에 대한 집착 때문이다”며 “물질에 집착, 사람에 대한 애착을 놓는다면 우리는 세상을 아름답게 살 수 있다”고 법문했다. 이어 “바다에서 죽음을 맞은 이름없는 수군들을 위한 호국영령재는 봉행된 적이 없었다. 그분들의 호국정신을 기리고 극락왕생을 발원하고자 수륙대재를 봉행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봉행위원장 범혜 스님은 “임진왜란 당시 조선 수군이 전멸한 당시 이 바다는 불바다를 이루었고 이 푸른 바다빛은 붉은색으로 물들었다. 통곡의 아픈 역사와 한을 품고 있는 장소이다”며 “우리 한민족, 우리 조선을 지키기 위해 장렬하게 목숨을 바친 호국 영령들을 위로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한편, 칠천량 해전은 임진왜란 해전 중 유일한 패전으로 기록된 전투이다. 당시 삼도수군통제사 원균이 160여 척의 전선을 이끌고 일본 군선 700여 척의 공격에 대항했지만 150여 척의 전선과 함께 병사 1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전투이다.

동국대 생활풍수 동문, 첫 학술세미나 열다

동국대 생활풍수CEO 총동문회,
4월 16일 ‘생활풍수’ 방향 모색

매장문화 퇴조 속 풍수 변화
묘자리에서 생활풍수로 전환
동국대 교수 등 전문가 초빙
한국 풍수지리 새 방향 모색



동국대 행정대학원 생활풍수CEO과정 동문들이 생활풍수 활성화를 위한 제1회 풍수지리 세미나에서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동국대 행정대학원 생활풍수CEO과정 동문들이 모여 풍수지리의 방향을 모색하는 ‘제1회 풍수지리 세미나’를 개최했다. 화장문화로 대변되는 장묘문화 변화에 맞춰 생활풍수로의 전환을 위한 계기가 마련될지 눈길을 끈다.

동국대 행정대학원 생활풍수CEO 총동문회(회장 도심 스님, 이하 동풍 총동문회)는 4월 16일 서울 방송통신대학 열린관에서 제1회 풍수지리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동풍 총동문회 세미나에는 동풍 총동문회장 도심 스님을 비롯하여 김익환 총동문회 운영위원장, 총동문회 고문 목탁 스님(국제불교지도자협회 이사장), 고문 무각 스님(통일불교조계종 종정), 서병열 종정협의회 사무총장, 배영희 총동문회 사무총장, 최병환 동원푸드 대표 등 동풍 동문들과 고성환 방송통신대 총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세미나를 주최한 총동문회장 도심 스님은 1부 개회식에서 “장례문화 변화로 매장문화가 외면당하고 화장문화가 대세가 된 지금 풍수지리도 변화가 필요했다. 음택보다는 양택 위주의 변화가 절실한 상황에서 풍수지리의 생활화를 위한 선후배간의 바램이 모여 이번 세미나를 열게 됐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고문 목탁 스님은 축사를 통해 “앞으로 동문회가 활성화 되어 하나된 힘으로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으면 한다. 동문 개개인의 마음이 더없이 감사하고 고맙다”고 말했다.

고문 무각 스님도 이런 동문들에 대해 “풍수지리는 미신이 아닌 선조들의 경험이 담긴 지혜의 소산으로 생활 속에서 접목할 부분이 많다”며 “1회 세미나에 그치지 말고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동문들이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고성환 방통대 총장은 “흔히 명당을 볼 때 돈이 모이는 자리와 권력을 누리는 자리는 다르다고 한다. 이는 돈과 권력을 모두 쥐려는 욕심을 버리라는 선조들의 가르침”이라며 “사람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뜻으로 모인 이날 세미나를 시작으로 더욱 활성화되어 한국 풍수지리가 발전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방송통신대도 활성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동풍 총동문회는 개회식에서 평생교육 등 활성화를 위하여 방송통신대에 방통대 50 프로젝트 기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향후 지속적인 학문 발전을 위해 학술연구위원장으로 박시익 박사를 추대했다.

1부 개회식에 이어 2부에서는 ‘4차 산업혁명시대 한국풍수의 재정립과 발전 방안’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가 진행됐다. 세미나에서는 △지영학 숭실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의 ‘조선시대 광산 김씨 가문의 음택 풍수 특징 연구’ △박성대 대구가톨릭대 지리학과 겸임교수의 ‘지리학의 관점에서 본 양택 풍수’ △양상현 교수의 ‘정통풍수사상의 생지명당에 현대과학적 접근’ △이종천 교수의 ‘한국 풍수지리의 현재와 백년대계를 위한 고언’ △철학박사 세준 스님의 ‘禪풍수로 만나는 삼보사찰’ 등이 발표됐다.

이종천 교수는 “풍수지리의 궁극적 목표는 탈신공개천명으로 운명을 바꾼다는 것인데, 아주 특별한 일점의 터와 바꾸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적선과 적덕을 쌓은 이에게만 이러한 것들이 주어진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통도사, 계묘년 윤달 생전예수재 회향

4월 16일, 경내 일원서 봉행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덕)가 4월 16일 경내 일원에서 계묘년 윤달 생전예수재를 회향했다. 통도사는 지난 2월 27일 입재했으며 49일 간 봉행하며 불자들의 공덕을 강조하고 기도 정진할 것을 강조했다.

회향 법석은 전통방식에 따라 도량건립, 도량결계, 소청상위, 소청중위, 소청하위, 권공, 시식 후 봉송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생전예수재 전통의식을 위해 통도사 염불원 스님들이 전통의식 원형을 그대로 보여주는 작법을 선보였다. 통도사 불자들은 통도사 염불원의 장엄한 작법에 함께 큰 박수로 화답했으며, 염불 속에 느낀 환희심을 표현하듯 어깨를 덩실거리며 춤을 추기도 했다. 마치 생전예수재가 축제와 찬탄의 한마당으로 마무리 되는 듯 불자들의 참여가 눈길을 끌었다.



통도사는 4월 16일 경내 일원에서 계묘년 윤달 생전예수재를 회향했다.

주지 현덕 스님은 “생전예수재는 사후를 위해 미리 공덕을 쌓는다는 의미도 있고 전생에 인간으로 태어나기 위해 지은 빚을 갚는다는 의미도 있다”며 “하지만 핵심은 이 시대에 탐진치 삼독을 여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지해서 청정심을 회복하며 모든 중생이 이익이 되도록 보살심을 실천수행하자는 것”이라고 의미를 전했다.

이어 주지스님은 “세 번 박수를 쳐주셨으면 좋겠다. 첫번째는 오랜 시간 동안 전통작법을 재현하고 도움을 준 염불원장 영산 스님과 염불원 스님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해주신 모든 분들과 동주도반에게 박수를 보내주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생전예수재는 살아서 자신을 위해 지내는 재로서, 윤달이 있는 해에 사찰에서 시행하는 한국불교의 대표적인 재의식 중 하나이다. 수륙재, 영산재와 더불어 우리나라 불교 3대 재회(齋會) 중 하나이고 천도재 성격을 가지지만 망자를 위한 천도재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생전예수재는 살아 있을 때 자신의 사후를 위해 진행하는 의례로 ‘생전(生前)에 미리(豫) 닦는(修) 재(齋)’를 의미한다. 자신의 극락왕생을 위해 마련하는 재의식으로 동참자 스스로가 의례의 주인공이 되어 의미가 크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대정대선사 문도, 범어사 기초수행금 후원

4월 14일, 부도탑 제막 성금모아 1000만 원 전달

범어사 선덕 용산당 대정대선사<사진>의 수행 정진을 기리기 위해 문도 스님들이 4월 14일 범어사에 기초수행 지원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

지원금은 대정대선사의 부도탑을 준비하며 모은 성금이며, 부도탑 제막에 앞서 대정대선사가 평소 강조한 인욕과 청정수행의 유지를 잇는 마음으로 마련했다.

문도를 대표해 본원 스님은 “대정대선사는 철저한 수행정진과 대중화합을 당부하셨고 항상 마음을 맑고 고요하게 하라며 강조하셨다”며 “큰 스님의 은덕을 기리기 위해 문도스님들이 부도탑과 기초수행금을 십시일반 모금했다”고 설명했다.

용산당 대정대선사는 2020년 12월23일 세수 90세, 법랍 72세에 원적에 들었다. 대정대선사는 1949년 출가해 백양사 운문암에서 금타 선사로부터 ‘이뭣꼬’ 화두를 잡아 본격적으로 정진했다. 모악산에서 생식으로 토굴 수행을 하면서 화두 삼매를 경험했으며, 범어사, 해인사 백련암 등에서 방부를 들여 수행했고 지리산에서 59세까지 생식과 벽곡으로 인욕 수행을 실천했다.



1979년 이후 부산 범어사 휴휴정사에서 선덕으로 주석해왔다. 후학들에게 인욕을 당부했던 대정대선사는 2020년 12월 23일 아침 공양 후 홀연히 원적에 들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남해 용문사, 생전예수재 회향

남해 용문사(주지 승원)가 4월 16일 경내에서 보물 제1446호 석가삼존 괘불도를 9년만에 사부대중에게 선보이며 생전예수재를 회향했다.

생전예수재에는 용문사 주지 승원 스님, 승학사 종욱 스님, 어산스님 및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용문사는 석가삼존 괘불도를 헌괘하고 고사단, 마구단, 각종 번을 장엄하여 종욱 스님을 비롯한 어산스님들이 생전예수재를 집전했다.

용문사 주지 승원 스님은 “용문사는 조선 숙종 때 수국사로 지정된 사찰이며 임진왜란 때 나라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 호국사찰”이라고 소개하며 “각자 자신의 몸을 받기 이전과 현재의 업을 씻어내고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고 많은 공덕을 짓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천년고찰 용문사 보물 제1446호 석가삼존 괘불도는 삼베바탕에 석가여래를 중심으로 문수 · 보현보살이 협시하는 삼존도 입상이다. 1769년 순천 선암사 중심으로 활동한 쾌윤 스님이 불화조성을 맡아 인물형태의 표정과 신체 비례 크기에 있어 18세기 불교미술의 대표인 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2014년 문화재 보존처리하고 점안법회 후 9년 만에 처음 공개됐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미소원 청년회, 장애아동 돕기 일일맛집



4월 14일, 미소원 법당서

사단법인 미소원 청년회(회장 류강렬)이 4월 14일 미소원에서 ‘장애아동 돕기 미소원 청년회 일일맛집’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부산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안도 스님, 장유정 미소원 이사장과 미소원 회원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으며 행사는 축사 및 미소원 청년회 회장이 · 취임식이 진행됐다. 신임회장은 불국토 산하 개금종합사회복지관장을 맡고 있는 류강렬 신임회장이다.

류강렬 신임회장은 “무엇보다 청년의 활동이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고령화 사회의 영향으로 종교에서도 그 성향을 뚜렷히 보여지고 있다”며 “앞으로 미소원 청년회는 불교의 자비나눔을 실천하는 전국 대표 불교 청년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포부를 전했다.

장유정 미소원 이사장은 “청년 불자 양성은 이 시대 가장 중요한 인재 불사이다”며 “역량을 강화하고 나눔과 발전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지해 줄 것이다”고 격려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동국대 경주병원, 비전선포식 개최

동국대 경주병원은 4월 17일 원내 본관 주차장에서 ‘제22대 병원장 취임식 및 비전선포식’을 개최했다.

정주호 동국대 경주병원장은 비전선포식을 통해 “급성기질환 진료중심 권역거점병원으로서의 책임수행을 위해 최첨단 의료장비 도입, 진료환경 확충, 우수한 의료진 초빙은 물론 가까운 미래에 중증외상센터 활성화를 목표로 제반 여건을 마련할 것”이라며 “새로운 미래를 향한 힘찬 도약에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 김진현 경상북도 복지건강국장, 김성학 경주시 부시장 등 많은 내외 인사들이 함께했다.



동국대 경주병원은 급성기질환 진료중심 지역거점 병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지난해 12월 뇌졸중 집중치료실 개소를 시작으로 부인과 복강경 수술 전문센터, 호흡기 전문센터 등의 조성 사업 준비를 하나씩 펼쳐 나가고 있어 기대가 증폭되고 있다. **신성민 기자**